마태복음 20:22 본문비평과 해석

송영목(고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가면서

Greek New Testament 5판(2014)의 마태복음에 본문비평 등급 {A}는 총33개이다(마 1:11, 16, 25; 4:10, 17; 5:44ab; 6:13, 18; 7:14b; 9:8; 11:27; 14:3; 17:2, 20ab; 18:26; 19:16, 17, 20, 24; 20:16, 22; 21:39; 23:13, 25; 25:13; 27:4, 9, 35; 28:6, 9, 20).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본인 א와 B가 일치하여 특정 독법을 지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א와 B와 Byz가 함께 특정 독법을 지지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예외. 마 18:26; 20:22; 27:9). 그런데 마태복음 20:22의 경우, א와 B 그리고 다수사본(Byz)이 모두 불일치함에도 비평등급은 {A}이므로 매우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주석서나 문

법서는 마태복음 20:22의 본문비평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 이 글은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것이 합당한지 외증과 내증 그리고 간본문(상호본문)을 통해서 검토한다.

1. 네 독법의 외증 분석

독 법	사본과 역본의 지지
πίνειν	ℵ D L Z Θ f^{13} 1 $it^{aur,b,c,d,e}$ vg $syr^{c,s}$ cop^{sa} eth^{pp}
πίειν	B 085
πίνειν, ἢ τὸ βάπτισμα ὃ ἐγὼ βαπτίζομαι βαπτισθῆναι	C (G) W Δ 33 Byz Lect $it^{h,q}$ $syr^{p,h}$ arm geo^{2} slav
πίνειν καὶ τὸ βάπτισμα ὃ ἐγὼ βαπτίζομαι βαπτισθῆναι	157 (180) 892 1071 cop^{bopt} eth^{TH} geo^{1}

첫 번째 그리스어 독법(reading)은 πίνειν인데, πίνω(마시다)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이다. 뜻은 '계속 마시다'이다.[2]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대문자 사본들(ℵ D 등)은 물론, 11-15세기의 일부 소문자 사본들 그리고 역본들의 지지를 받는다. 혹자는 마태가 마가복음 10:38의 세례에 대한 언급은 삭제함으로써, '잔'과 '세례'에 의해 장려될 법한 성례적 해석을 억누른다고 본다.[3]

1) C. L. Quarle, *Matthew*,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7), 237;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243, 참고로 H. Ridderbos(1951), J. van Bruggen(1990), M. J. Wilkins(2004), J. Nolland(2005), F. D. Bruner(2007), D. L. Turner(2008) 그리고 G. R. Osborne(2010)은 마 20:22의 본문비평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2) W. G. Omstead, *Matthew 15-28: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138.

3) W. D. Davies and D. C. Allison Jr., *Matthew*, Volume III, ICC (Edinburgh: T&T Clark, 1997),

둘째 독법은 πίειν인데, πίνω(마시다)의 아오리스트 능동태 부정사이다. 뜻은 단회적으로 '마시다'이다.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이다(참고. 사 51:17; 마 26:39). 이것은 그리스어 대문자사본들인 4세기의 B와 6세기의 085의 지지를 받는다.

셋째 독법은 πίνειν, ἢ τὸ βάπτισμα ὃ ἐγὼ βαπτίζομαι βαπτισθῆναι인데, "마실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잠기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다"(drink of, and to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that I am baptized with([KJV]). 이 독법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 '마시다'(πίνειν)가 접속사(ἢ)에 의해 아오리스트 수동태 부정사 '세례를 받다'(βαπτισθῆναι)와 연결된다. 그런데 '마시다'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이지만, '세례를 받다'는 아오리스트 수동태 부정사이다. 그렇다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고난의 잔은 계속 마시지만, 세례는 단회적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 독법은 간본문인 마가복음 10:38-39에 후대에 동화된 것처럼 보인다.[4] 이 독법은 일부 대문자 사본들(C W Δ)과 대다수 소문자 사본과 성구집(lectionary) 그리고 고대 역본들의 지지를 받는다.

넷째 독법은 πίνειν καὶ τὸ βάπτισμα ὃ ἐγὼ βαπτίζομαι βαπτισθῆναι인데,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잠기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다. 이것은 접속사(καὶ)에 있어 셋째 독법과 다르다. 간본문인 마가복음 10:38의 소문자 다수사본은 '그리고'(καὶ)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20:22에서 다수사본은 넷째 독법 대신에 접속사 '혹은'(ἢ)을 사용하는 셋째 독법을 지지한다. 더구나 넷째 독법을 지지하는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은 전혀 없기에, 사본

89.

4) Omstead, *Matthew 15-28: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138;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40. 매츠거는 마 20:22의 본문 비평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상의 무게는 매우 가볍다.

사본 상의 증거 즉 외증만 두고 볼 때,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독법이 지지를 받는다. 첫째와 둘째 이문들을 비교하면, 첫째 독법이 사본의 지지를 더 크게 받는다. 그리고 첫째와 셋째 이문들을 비교하면, 전자의 무게가 더 강하다. 그러므로 외증은 첫째 이문이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지만, 원본에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데 GNT 5판과 NA 28판은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이하 CBGM)을 따르다. CBGM은 필사자가 저본(Vorlage)을 충실하게 필사할 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소수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필사자가 다른 독법을 제시할 경우 그것은 다른 자료에서 온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제한다.[5] 이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첫째 독법은 א와 cop^{sa} eth^{pp}가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에 속하므로, 계보 상 일관성을 유지한다.

둘째 독법은 그리스어 사본 두 개의 지지만 받기에 계보적 일관성을 추적하기 어렵다. 셋째 독법은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들과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들은 물론 다양한 역본들의 지지를 받기에, 계보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독법은 157(12세기, 892(9세기), 1071(12세기)에 필사된 소문자 사

5) "CBGM은 우선 신약성경 본문 내에서 이독이 나타나는 모든 구절들에서 내·외적판단기준이라는 종래의 본문비평 방법을 사용하여 엄청난 수의 개별적 결정을 얻고, 이 정보들을 종합하여 전체 전승 안에서 모든 증거사본들이 지닌 개별적인 위치를 확정하며, 가장 위에 전승의 시작본문을 위치시키고, 그 밑으로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 자리매김 한 증거사본들을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려 내려냄으로써 계보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 이 방법론 역시 외적증거에 따른 판단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본간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 오류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내적증거에 따른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 비발전적인 순환논리를 범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사공병도, "신약성경 본문비평의 이해와 전망: 오늘날 신약성경 본문비평이 처한 위기 속에서 '일관성에 근거한 계보적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1), 80, 82.

본들 간의 계보적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그리스어 소문자 사본들보다 오히려 콥트어와 이티오피아어와 게오르기아어 역본이 더 오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고대 역본들은 주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기에, 소문자 사본들과의 계보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요약하면, 계보적 일관성은 첫째 독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첫째 독법은 소위 서방 본문 계열로 분류되는 D와 $it^{aur,b,c,d,e}$ 그리고 vg 사이에 계보적 일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첫째 독법에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소위 서방 계열 간의 계보적 비일관성이나 충돌이 나타나는가? 사본과 역본의 제작 연대를 고려하면, 첫째 독법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 소위 서방 계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네 독법의 내증 분석

내증은 마태복음 20:22의 전후 문맥과 마태복음의 기록목적 그리고 주요 신학에 비추어서 살핀다.

2.1. 문맥

마태복음 19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의 움직임을 다루는 19:1-25:46의 시작 단락 본문이다. 19장은 이혼(1-12절), 어린이들에게 복 주심(13-15절), 그리고 부와 천국의 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소개한다(16-30절). 그 다음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1-16)가 소개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을 예언하신다(마 20:17-19). 본문비평 구절인 22절이 속한 마태복음 20:20-23은 세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당돌한 요구를 언급하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사건은 마태복음 21:1 이하에서 시작한다.[6] 마 17:14-20:34의 교차대칭구조에 따르면, 마 20:20-28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17:19-20에 아래와 같이 상응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22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도달하기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일어난 일을 다룬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수난을 예고하신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회적 사건이므로 둘째 독법에 어울린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 직전에 고난 주간에 연이어 일어난 일들을 고난의 잔이라고 본다면,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표기한 첫째 독법도 불가능하지 않다.

2.2. 기록목적과 주요 신학

마태복음이 기록 목적은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다.[7]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은 이런 왕적 통치에 앞서므로, 위의 네 가지 독법 모두가 이에 어울린다.

2.3. 요약

6) 마 17:14-20:34의 교차대칭구조에 따르면, 마 20:20-28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17:19-20에 아래와 같이 상응한다.

A. 꾸지람과 자비: 악령 들린 자를 치료하심(17:14-18)
B. 제자들을 가르치심: 믿음, 기도, 금식(17:19-20)
I. 죄 사함과 치유(18:21-19:2)
B'. 제자들을 가르치심: 고난, 섬김, 통치(20:20-28)
A'. 꾸지람과 자비: 두 맹인을 치유하심(20:29-34)

참고. J. J. Scholtz, “Betwee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Jerusalem and beyond: The Chiastic Structure of Matthew 17:14-20:34,” In die Skriflig 51/1 (2017), 2.

7) M. J. Wilkins, *Matthew* (Grand Rapids: Zondervan, 2004), 30.

마태복음 20:22의 문맥은 첫째와 둘째 독법들을 지지하고, 마태복음의 기록목적과 주요 신학은 네 이문들에 어울린다.[8]

3. 간본문에서 본 마태복음 20:22

마태는 구약의 '잔'의 용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시 11:6; 사 51:17; 렘 25:15-17; 51:7; 합 2:16; 슥 12:2; 참고. 마 26:39; 요 18:11).[9] 구약의 성취를 종종 언급하는 마태는 시편과 선지서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그의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 독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마태복음 20:22의 구약 간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손에는 예루살렘에게 내릴 분노의 잔이 있다(사 51:17; 합 2:16). 그리고 하나님은 열방에 진노의 술잔을 내리신다(렘 25:16-17). 스가랴

8) 예수님의 섬김이 유대교와 결별하던 (전환기 동안)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마태공동체의 형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참고. 배재욱, "마태복음 20:17-28의 세 번째 수난 예고에 나타난 예수의 섬김 사상," 『신약연구』 10/1 (2011), 27; F. Viljoen, "The Matthean Community within a Jewish Religious Society," *HTS Teologiese Studies* 72/4 (2016), 4-7. 마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면, 그 때는 마태공동체와 유대교의 결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E. Schweizer, G. N. Stanton, 그리고 K. Stendahl 등이 주장하듯이, 마태공동체가 유대교와 결별했다는 주장(extra muros)도 쉽게 간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말의 공동체인 '교회'(마 16:18; 18:17)와 구분되는 '그들의 회당'(마 4:23, 9:35; 10:17; 12:9; 13:54)과 '너희 회당'(23:34)을 참고하라.

9) 마태가 구약을 인용할 때 시리아어 페쉬타의 영향을 다소 많이 받았다(마 1:22-23; 4:15-16; 21:5)라고 보는 H. F. van Rooy, "The Syriac Versions of Old Testament Quotations in Matthew," *In die Skriflig* 49/1 (2015), 11-12; C.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486. 참고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려했던 아도니야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잔'과 같은 관련 용어가 나타나지 않기에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은 없다(왕상 1:5 이하). D. Rudman, "Whose Kingdom is It anyway?: The Sons of Zebedee as Antitypes for Adonijah in Matthew 20," *Biblische Notizen* 125 (2005), 97-104.

는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에게 심판의 잔을 내리신다고 밝힌다(슥 12:2).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은 '잔' 자체보다는 '분노, 진노, 술'과 같이 잔에 담긴 내용물로써 은유적으로 알려진다.[10] 스가랴와 유사하게 사도 요한은 유대인과 로마제국에게 임할 음행의 포도주 잔과 대접 심판을 언급한다(계 14:8; 16:19; 17:4; 18:3; 참고. 계 16장의 7대접 심판).[11] 시편에 악인이 받을 심판은 '잔'은 물론 '불'로도 나타난다(시 11:7; 참고. 눅 12:49).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마심, 잔, 잔 안의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풍성하게 형성하여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중요성을 전달한다."[12]

마태복음 20:22의 공관복음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10:38-39이다. 마가는 예수님에게 정해진 고난, 즉 임박한 죽음을 상징하는 '잔'과 '세례'를 모두 언급한다(참고. 막 10:45; 14:36).[13] 그런데 마가와 달리 마태는 20:22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세례를 생략함으로써, 실제 물로써 세례를 시행하는 의식에 나타난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희석시키려 하지 않는 것 같다(참고. 마 3:7; 21:25).[14]

누가복음 12:50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세례' 때문에 매우 괴롭고 답답해하심을 언급한다. 누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10:38을 참고했을 수 있다.[15] 그러나 마태와 달리 누가는 여기서 '잔'은 언급하지 않는다.

---

10) N. Bosman, "The Cup as Metaphor and Symbol: A Cognitive Linguistics Perspective," *HTS Teologiese Studies* 75/3 (2019), 4-6.

11) G. Maier, 『마태복음』, *Matthäus-Evangelium*, 송다니엘 역 (서울: 진리의 깃발, 2017), 689.

12) Bosman, "The Cup as Metaphor and Symbol," 7.

13) R. T, France, 『마가복음』, *The Gospel of Mark,* 이종만 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671;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384.

14)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7), 758.

15)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382.

그러나 누가는 바로 앞 구절에서 '잔' 대신에 '불'을 언급했다(눅 12:49). '불'은 긍정적으로는 성령님을, 부정적으로는 심판을 상징한다(눅 3:9, 16-17).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입성 이전까지 아직 불붙지 않았다. 예수님은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세례라는 심판을 먼저 통과하셔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정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므로, 가족 중에 불같은 심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눅 12:51).

마태는 마가복음 10:38-39의 세례와 누가의 세례와 답답함을 모두 생략한다. 마태는 '잔'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의 은유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상의 간본문에 따르면, 마태복음 20:22에서 첫째와 둘째 독법이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고 후대 필사자들에 의해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긴 독법인 셋째와 넷째가 22절에서 탈문맥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오면서

마태복음 20:22의 외증과 내증은 첫째 독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압도적인 지지라기 보기 어렵다. 간본문적 해석에서 볼 때는 첫째와 둘째 독법이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22절에서 첫째 독법을 원본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평 등급은 {B}가 적절하다.

* 부록: 마태복음 23:26의 본문비평[16]

마태복음 23:26은 GNT 5판 마태복음의 본문비평에서 등급이 유일하게 {D}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구절의 본문비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의 그리스어 독법들을 살피기 전에 한글 번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글 개역개정』(1998)은 마태복음 23:26a에서 대명사 없이 '안을'로, 26b에서 대명사 없이 '겉도'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안과 겉이 25절의 '잔'인지 아니면 '대접'인지, 아니면 '잔과 대접' 둘 다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반면, 『공동번역』(1977)은 26a에서 '잔 속을'로 번역하고, 26b에서 대명사 없이 '겉도'로 모호하게 번역하지만 바로 잔의 겉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3:26의 그리스어 독법은 무려 6개에 달하기에 다소 복잡하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독 법	사본과 역본의 지지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잔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그것의 밖)	Θ f^{1} 205 700 $it^{a, e}$ syr^{s} geo 바른성경 루터성경 아프리칸스성경(1983, 2012) 화란어성경(1951) 히브리어 신약성경(DLZ)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잔의 속) ... τὸ ἔξωθεν αὐτοῦ(그것의 밖)	D it^{d}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그것의 밖)	B* E* G f^{13} 28 157 1424 *l*387 eth NIV ESV KJV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ῶν(그것들의 밖)	1243 *א(2א ἐντός for ἐκτός) B^{2} C L W 0102 33 *Byz Lect* Tyndale Greek New Testament(2017)

16) 이 글은 송영목, "마태복음 23:26의 본문비평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50 (2022), 60-86에 게재되었는데 요약하여 소개한다.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밖)	$it^{aur, c, f}$ vg cop^{meg}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αὐτό(그것)	f^{1211}

사본 상의 지지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독법에 쏠려있다. 둘째 독법의 경우 그리스어 사본과 고대 역본의 지지가 매우 약하다. 그리고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다섯째 이문은 αὐτοῦ/αὐτῶν을 생략함으로써, 잔과 대접을 사람에 대한 은유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여섯째 독법도 그리스어 사본과 고대 역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성구집의 지지조차 충분하지 않다.

CBGM의 가정에 따르면, 소위 서방본문 유형으로서 소수의 일관성 있는 D(5세기)와 it^{d}(5세기)의 지지를 받는 둘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 τὸ ἔξωθεν αὐτοῦ)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하지만 둘째 독법은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원본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여기서 외증의 연구 범위를 좁혀,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상당히 받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독법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첫째, 이 세 독법은 사본들의 어떤 계보적 일관성을 반영하는가? 둘째, 이 세 독법은 CBGM의 가정에 적합한가?

가장 짧은 표현인 첫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을 지지하는 Θ(9세기) f^{1}(10-14세기) 205(15세기) 700(11세기) it^{a}, ^{e}(4-5세기)

syr^{s}(4세기) geo(5세기)는 사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사본의 계보와 장소 및 시간에 있어 서로 밀접히 연관되는가? 이 사본들이 필사된 기간은 AD 4-15세기이므로 약 11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본들이 제작되고 유통된 이탈리아와 시리아와 터키라는 광활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CBGM의 계보적 일관성을 따라 말한다면, (소위 서방본문 유형의) 이탈리아어 역본, (소위 서방본문 유형의) 시리아어 역본, 그리고 (가이사랴본문 유형의) 그루지아어 역본은 9세기 이후의 그리스어 사본(Θ f^{1} 205 700)의 조상 본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사본이 고대 역본의 선조 본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역은 성립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독법의 경우, 사본들의 계보적 연관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분명하다.

긴 표현인 셋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을 지지하는 B*(4세기) E*(6세기) G(9세기) f^{13}(11-15세기) 28(11세기) 157(12세기) 1424(9-10세기) 𝔍387(11세기) eth(6세기)는 사본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계보 상 서로 밀접한가? 다시 말해,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B*는 6세기의 비잔틴 계열 및 혼합된 계열의 에티오피아어 역본을 거쳐서 한참 후대인 11-15세기의 다른 지역의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f^{13})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로 일관성과 응집력을 보이는가? 대다수의 사본학자들은 B*가 f^{13}의 개연성 있는 조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셋째 독법에서 사본의 계보적 응집성과 일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그럼에도 응집성을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B*는 근접 지역의 에티오피아 역본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에티오피아어 역본이 동일 본문 계열인 f^{13}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셋째 이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왜 앞의 '잔과 대접'을 뒤에서 단수 대명사(αὐτοῦ)로 처리하는가? 필사자들이

잔과 대접을 마치 한 세트처럼 묶어서 제유법처럼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본 필사자들의 이러한 이해 관습은 어떤 공통된 조상 사본의 영향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 변개되지 않고 전수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독법처럼 긴 표현인 넷째 이문(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 ... τὸ ἐκτὸς αὐτῶν)을 지지하는 7)2א세기) (4]*א세기]] 1243[11세기] ἐντός for ἐκτός) B2(7세기) C(5세기) L(8세기) W(4-5세기) 0102(7세기) 33(9세기) *Byz*(9세기 이후) *Lect*(8세기 이후)는 사본 숫자에 있어 매우 많다. 4-9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문자 사본(²א *א B²)과 소문자사본(33) 그리고 9세기 이후의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Byz*)과 8세기 이후의 성구집(*Lect*)이 동일한 이문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비잔틴 계열의 대다수 소문자 사본들(그리고 그들의 조상 본문)과 성구집이 시간상으로 보다 앞선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본들은 26절의 '잔과 대접'을 복수 대명사(αὐτῶν)로 받기에 문법적으로 매끄럽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26절의 이런 복수형 표현은 25절의 '잔과 대접'과도 조화를 이룬다.

위에서 다룬 세 독법 가운데, 셋째와 넷째는 후대 필사자들이 마태복음 23:26의 '잔과 대접'이라는 원문을 의도적으로 '잔'으로 단축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참고. SBLGNT의 긴 표현). 그런데 셋째와 넷째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 가운데 첫째 독법('잔의 속 ..... 그것의 밖')을 지지하는 고대역본(it$^{a, e}$ syr^{s} geo)보다 더 후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소문자 사본(*Byz*)과 성구집(*Lect*)이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고대 역본들이 그리스어 사본을 참고하여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BGM의 원칙을 따른다면 이 질문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다. 고대 역본을 제외하고 본문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만 고려한다면, 첫째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Θ[9세기])의 연대는 셋째 독법(E*[6세기] G[9세기])과 넷째 독법(4[*א세기] W[4-5] C[5세기] 7[²א세기] B²[7세기] L[8세기])보다 후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CBGM의 가정과 사본 상의 지지를 고려하면, 넷째 독법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넷째 독법은 고대 대문자 사본과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 그리고 성구집의 지지를 골고루 받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9.

배재욱. "마태복음 20:17-28의 세 번째 수난 예고에 나타난 예수의 섬김 사상." 『신약연구』 10/1 (2011): 25-53.

사공병도. "신약성경 본문비평의 이해와 전망: 오늘날 신약성경 본문비평이 처한 위기 속에서 '일관성에 근거한 계보적 방법론'이 지니는 의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1.

송영목. "마태복음 23:26의 본문비평과 해석." 『성경원문연구』 50 (2022).

Bosman, N. "The Cup as Metaphor and Symbol: A Cognitive Linguistics Perspective." *HTS Teologiese Studies* 75/3 (2019): 1-8.

Davies, W. D. and Allison Jr., D. C. Matthew. Volume III. ICC. Edinburgh: T&T Clark, 1997.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15.

France, R. T. 『마가복음』. *The Gospel of Mark.* 이종만 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_____.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7.

Keener, C.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Maier, G.『마태복음』. *Matthäus-Evangelium.* 송다니엘 역. 서울: 진리의 깃발, 2017.

Metzger, B. M.『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Omstead, W. G. *Matthew 15-28: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Quarle, C. L. *Matthew.*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7.

Rudman, D. "Whose Kingdom is It anyway?: The Sons of Zebedee as Antitypes for Adonijah in Matthew 20." *Biblische Notizen* 125 (2005): 97-104.

Scholtz, J. J. "Betwee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Jerusalem and beyond: The Chiastic Structure of Matthew 17:14-20:34." *In die Skriflig* 51/1 (2017): 1-9.

Van Rooy, H. F. "The Syriac Versions of Old Testament Quotations in Matthew." *In die Skriflig* 49/1 (2015): 1-12.

Viljoen, F. "The Matthean Community within a Jewish Religious Society." *HTS Teologiese Studies* 72/4 (2016): 1-8.

Wilkins, M. J. *Matthew.* Grand Rapids: Zondervan, 2004.